

## 몽골 조선족 여성의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유형\*

박영선\* · 정영숙\*\*

대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

(2004년 10월 18일 접수)

### Korean Traditional Food Perception and Cultural Aspect of Korean Mongolian Housewives\*

Young-Sun Park and Young-Sook Chung

Dept. of Food and Nutrition & Dep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ersity

(Received October 18, 2004)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erceptual dimensions and patterns of Korean traditional food and to find the determinants of the patterns. Data were collected from 305 Korean housewives living in Mongol, and were factor and cluster analyzed. The results revealed two different dimensions and patterns i.e., high involved vs. low involved groups. Descriptive statistics showed that perceptual pattern types are likely to vary depending on socio-demographic and cultural background of Korean traditional foo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perceptual patterns between high and low involved groups of Korean Mongolian are discussed, and future implications for global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culture are provided.

**Key Words :** Korean traditional food, Korean Mongolian, food culture

#### I. 서 론

일반적으로 식생활 문화는 식품가공체계를 반영하는 조리법과 먹는 방식 그리고 의복이나 환경 등과 같은 먹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각 나라의 음식에는 문화적인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한국의 전통음식 문화를 분류하면 절후(節候)에 따라 특별히 차려서 계절과 음식을 조화시키고 풍류를 즐기는 절식(節食), 시식(時食)이 있으며, 한 사람이 출생하여 생의 과정을 마칠 때까지 겪는 몇 고비의 과정을 의미 있게 하는 출산과 혼례, 상례와

제례 등의 통과례 음식과 건국 이래 대대로 이어 내려온 궁중음식으로 나눌 수 있다. 대대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우리는 전통음식이라고 칭하고 있으나 몽골과 연변 조선족들은 아시아권내의 중국이라는 특수지역에서 다른 민족을 의식하며 그들과의 대비 속에서 생활하므로 횡적인 개념에서 우리의 전통음식과 유사한 형태의 음식을 그들은 일반적으로 민족음식이라고 일컫고 있다.

전통 식생활문화의 가치는 첫째, 생명유지, 종족보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타당성과 합리성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오랜 생활역정의 체험을 통

교신저자: Young Sook Chung, Dep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ersity, Kyungbuk Kyungsan City 712-714, Korea Tel : 82-53-850-6815

Fax : 82-53-850-6819 E-mail : annach@daegu.ac.kr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Daegu University, Research Grant in 2004.

하여 수정·보완을 거듭한 것이므로 현대 과학이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내포하고 있으며 셋째, 각 민족만이 갖는 개성이 있어 산업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계화·대량화에서 초래되기 쉬운 문화의 획일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넷째, 각 민족들로 하여금 동질성·소속감·심리적 충족감을 갖게 하므로 문화유산으로 소중할 뿐 아니라 미래의 생활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전통음식문화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타민족이 가지는 우리의 전통음식문화의 인식 체계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sup>1)2)</sup>. 그 이유는 문화는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자극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축적되기도 하며 소멸되기도 하므로 문화는 풍토에 따라 상이하게 정착된다. 그러므로 타민족이 가지는 우리의 전통음식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준거를 제공해 주고 그러한 준거는 한국 전통음식문화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는 우리에게 식생활의 가치와 그러한 식생활이 형성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해주며 또 한국의 전통음식문화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타민족이 가지는 우리의 전통음식문화에 대한 정보는 식품영양학계 뿐 아니라 기업 및 산업경영자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통음식문화에 대한 인식차원이나 유형에 대한 자료와 실증적인 연구결과는 기업과 산업경영자에게 타민족 소비자들이 가지는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수요뿐 아니라 그 나라 소비자들의 기호와 취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욕구와 취향은 문화적 배경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특히 근래에는 기업의 국제화와 유통시장 개방 등을 비롯한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기업과 경영자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적 환경에 접하게 되면서 소비자 기호의 차이와 소비생활의 상이한 측면으로 인하여 해외시장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소비행태 차이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생활 속에 내재된 문화가 강조되고 있고 세계는 자국의 문화를 상품화하는 문화의 글로벌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문화는 생산요소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문화는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문화

를 이해하고 알아야 시장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도 문화를 21세기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식생활문화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타민족에 대한 조사연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다양한 자료를 취급함으로써 식생활문화를 형성하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국제적 비교는 문헌의 일부로서 식생활 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논점들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되며, 이로 인해 우리 전통음식문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발전 및 개선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몽골 조선족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과 인식유형을 알아봄으로써 이들이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이 동질적인지 이질적인지를 알아보고, 인식유형에 따라 식생활 문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민족의 동질성을 반영하는 민족생활풍습인 그들의 전통 식문화 양상의 실상을 알아보고 한국과 비교함으로써 민족공동체적 심성(心性)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한국전통음식을 글로벌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전통음식 산업의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내용

조사대상은 몽골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주부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자료 수집은 2000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예비조사 및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2차 자료 수집은 2001년 8월부터 12월에 걸쳐 한인회를 중심으로 조선족 주부 305명에게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배부한 다음 회수하는 방식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유형에 포함된 요인은 한국전통음식과 전통상차림에 대한 인지도, 한국전통음식을 선호하는 이유, 외래음식과 비교한 한국전통음식의 특성, 한국전통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계승·발전 방향, 한국전통음식

을 개발할 필요성과 이용 빈도 등이다. 이들 요인들은 5점 Likert 척도 1점은 '전혀 모른다' 또는 '매우 좋지 않다'를, 3점은 '보통'을, 그리고 5점은 '매우 잘 알고 있다' 또는 '매우 좋다'를 반영한다.

## 2. 분석방법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요인차원의 분석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변인 간에 공통적인 요인을 찾아내어 각 변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 정도를 산출하고 그리고 공통적인 구조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들을 베리맥스(VARIMAX) 방법으로 회전하였고 요인분석에 의해 묶인 공통적인 요인은 Cronbach's  $\alpha$ 를 통해 신뢰도 검증을 거쳤다.

한국전통음식의 인식유형의 분석에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이 적용되었다. 군집분석은 전체 주부들의 인식요인이 유사한 집단들로 묶는 방법이다. 인식점수의 동질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클리드 거리자승법(*squared euclidean distance*)이 사용되었고, 동질적인 주부를 묶는 방법으로는 워드법(*Ward's method*)이 적용되었으며, 군집수를 결정하는 데는 묶임 계수(*fusion coefficient*)와 덴드로그램(*dendrogram*)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자료에 몇 개의 인식유형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유형과의 관계는 t-test와 카이제곱( $\chi^2$ ) 검증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사회 인구학적 변인은 가계소득, 주부 소득, 학력, 연령, 가족 수, 결혼 년수 등과, 한국전통음식을 배우게 된 경위 및 매체와 계기, 한국전통음식을 선호하는 이유, 명절과 행사시 한국전통음식과 외래음식을 이용하는 정도, 식사 준비 시 고려하는 요인 등이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가장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Variables	Categories	N	%
Husband's occupation	Teacher & government workers	89	29.5
	Clerical workers	14	4.6
	Technical workers	16	5.3
	Self-employed	25	8.3
	Farm workers	150	49.7
	Others	8	2.6
Wife's occupation	Teacher & government workers	55	18.1
	Clerical workers	12	3.9
	Technical workers	15	4.9
	Self-employed	24	7.9
	Farm workers	72	23.7
	Housewives	126	41.4
Education	Elementary school	29	9.8
	Junior high school	110	37.3
	High school	101	34.2
	More than high school	55	18.7
Religion	Have	13	4.7
	Not have	265	95.3
Family type	Nuclear family	227	77.7
	Extended family	65	22.2
Hometown	China	136	45.9
	South & North Korea	160	54.1
	M (SD)		
Tot. family inc.	1,236.4 (536.9) : China Yuan		
Wife's income	545.5 (236.1) : China Yuan		
Age	41.7 (9.2)		
Family size	3.9 (1.2)		
Years of marriage	18.5 (10.3)		

<sup>a</sup> Each total is less than 305 due to missing data.

의 직업은 농업이 49.7%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공무원 및 교사로 29.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사무직, 기술직, 자영업의 비율은 10% 미만으로 상대적 분포도가 낮았다. 주부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41.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농업(23.7%), 교사 및 공무원(1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이 37.3%와 34.2%로 상대적 분포가 다소 더 높게 나타났다.

종교는 무종교가 95.3%로 대부분 종교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방화가 된지 오래지 않고 실제로 그들과 대화 해 보면 체제적으로

종교를 갖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게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가족유형은 77.7%가 핵가족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부의 고향은 조선족이면서 몽골에서 태어난 주부가 45.9%이고, 한국에서 이민 간 세대가 54.1%로 남한과 북한이 고향인 경우이다.

가계 월평균 소득은 1,236.4 투그릭(TG, 몽골 화폐단위)이며, 이중 주부의 소득은 545.5 투그릭으로 전체 소득의 44.1%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족 주부의 평균 연령은 41.7세이며 평균 가족 수는 3.9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조선족 주부의 평균 결혼 년수는 18.5년 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준편차가 10.3년으로 집단 내 분산이 다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한국전통음식의 인식차원 및 유형

### 1) 한국전통음식의 인식차원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을 측정할 7개의

항목들을 중심으로 주요인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행한 결과와 요인별 측정항목, 각 항목의 회전(varimax rotation) 후 요인적재량 및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 등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은 요인분석에 포함된 항목들의 분산을 검증한 결과이며 모든 항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요인분석에 포함된 항목들은 scree test 결과 2개의 요인으로 묶였고, 2개의 요인으로 설명되는 총분산은 72.31%로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는 요인부하값이 0.50이상인 변수들을 중심으로 요약한 도표이다. 요인 1로 설명되는 분산은 46.06%로서 2개의 요인 중 상대적인 설명력이 다소 높았다. 첫 번째 요인은 '전통성 인지' 차원으로 반상, 돌상, 회갑상, 제상 등과 같은 한국전통상차림과 한국전통음식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한국전통음식이 건강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치며, 외래음식과 비교하여 한국전통음식이 더 우수하다고 인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한국전통음식이 다음 세대

<Table 2> Results of factor analysis

Items	Factor 1	Factor 2
Perception of table arrangement for Korean traditional food	0.759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0.738	
Perception of the impact of Korean traditional food on health	0.732	
Assessment of comparing Korean traditional food with foreign food	0.629	
Perception of succession to Korean traditional food	0.592	
Need for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food		0.769
Intention of using Korean traditional food		0.716
Eigenvalue	2.52	1.14
% of Variance	46.06	26.25
Cronbach's $\alpha$	0.72	0.67

<Table 3> Results of variance analysis

Items	Factor 1	Factor 2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51.95	86.56***
Perception of table arrangement for Korean traditional food	45.37	76.12***
Assessment of comparing Korean traditional food with foreign food	59.02	87.32***
Perception of the impact of Korean traditional food on health	70.80	111.69***
Perception of succession to Korean traditional food	68.41	98.51***
Need for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food	58.84	34.28***
Frequency of using Korean traditional food	3.32	3.66*

\*p<0.05 \*\*\*p<0.001

에 계승되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두 번째 요인은 한국전통음식을 현대인의 식생활에 맞게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한국전통음식이 현대의 식생활에 맞게 개발된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요인은 '전통성-현대화 지향성'을 나타내는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 한국전통음식의 인식유형

한국전통음식의 인식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군집분석은 2단계에 걸쳐 실시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덴드로그램 기법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자료에 몇 개의 cluster 즉 인식유형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euclidean distance 측도를 이용하여 덴드로그램에서 파악된 cluster의 수를 지정해 준 뒤 quick cluster 분석을 실행하여 인식패턴의 유사성과 이질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자료에서 2종류의 cluster가 나타났으며, <표 4>에 군집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305명의 주부 중 72.5%가 cluster 1과 같은 인식유형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27.5%는 cluster 2와 같은 유형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몽골 조선족이 전체적으로 한국전통음식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군집별 인식수준은 뚜렷한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가 집단을 군집화 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군집 1에 속하는 몽골 조선족은 2에 속하는 사람들보다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수준이 항목별로 모두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래음식과 비교한 한국전통음식의 우수

성, 한국전통음식을 계승하고 현대인의 식생활에 맞게 개발할 필요성, 한국전통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군집 1은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고몰입(high-involved) 유형으로, 군집 2는 상대적 인식수준이 낮은 저몰입(low-involved)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요인분석에서 변인 간에 공통 요인 혹은 인자를 중심으로 구조화된 두 가지의 차원 즉 '전통성 인지차원'과 '전통성-현대화 지향차원'은 인식구조가 유사한 조선족을 집단으로 묶는 군집분석에서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은 전통성 인지차원과 '전통성-현대화 지향차원'으로 구분되는데 비해 실질적인 집단으로 구분하는 군집분석에서는 이러한 차원의 특성보다는 인식수준의 고저가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어 각 분석이 시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한국전통음식의 인식유형과 식생활 문화와의 관계

### 1) 인식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식유형별로 가계총소득 및 주부소득, 학력, 연령, 가족 수, 결혼 년수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표 5>에 요약되어 있으며, 주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한국전통음식의 인식유형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4> Results of cluster analysis : Perceptual patterns

Items	Cluster	
	High Involved	Low Involved
Perception of table arrangement for Korean traditional food	3.24	2.38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food	3.32	2.39
Assessment of comparing Korean traditional food with foreign food	3.97	2.99
Perception of development for Korean traditional food	4.19	2.81
Perception of the impact of Korean traditional food on health	3.86	2.79
Need for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food	4.41	3.43
Frequency of using Korean traditional food	3.32	3.08
Number of cases (N)	221	84
Percent of cases (%)	72.5	27.5

&lt;Table 5&gt;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each group

Variables	Group		t-value
	High Involved	Low Involved	
Family income (TG)	1200.1 (584.8)	1328.0 (379.3)	2.18*
Wife's income (TG)	648.4 (269.7)	640.4 (163.3)	0.25
Education	3.5 ( 0.9)	4.3 ( 1.4)	4.89***
Age (Years)	43.3 ( 9.5)	37.5 ( 6.8)	5.83***
Family size	4.0 ( 1.2)	3.7 ( 1.0)	2.42**
Years of marriage	20.5 ( 10.5)	13.1 ( 7.5)	6.64***

\*p&lt;0.05 \*\*p&lt;0.01 \*\*\*p&lt;0.001

가계총소득은 고몰입 인지유형에 속하는 집단이 1200.1 투그릭(TG; Mongol 화폐단위)<sup>3)</sup>인데 비해 저몰입 유형 속하는 집단은 1328.0 투그릭으로 고몰입 인지유형에 속하는 집단의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준편차는 고몰입 유형(584.8 투그릭)이 저몰입 유형(379.3 투그릭)보다 높게 나타나 평균소득 수준은 낮으나 평균소득을 중심으로 한 집단내 분산은 크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 주부의 소득수준은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유형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학력은 고몰입 집단(M=3.5)이 저몰입 집단(M=4.3)보다 낮았으나 연령은 고몰입 집단에 속하는 주부들이 저몰입 집단에 속하는 주부들보다 높았다. 가족 수는 고몰입 집단이 4.0명인데 비해 저몰입 집단은 3.7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혼 년수는 고몰입 집단이 평균 20.5년이고 저몰입 집단은 13.1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주부의 결혼 년수가 길면 길수록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 2) 인식유형별 식생활 문화의 특성

인식유형별 식생활 문화의 특성(표 6)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전통음식을 배우는데 있어서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친정어머니로부터 배웠다는 응답은 고몰입 유형(52.5%)보다 저몰입 유형(72.6%)이 더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시부모나 시할머니로부터 배웠다는 응답은 고몰입 유형(32.35% vs. 6.0%)보다 저몰입 유형(11.9% vs. 3.6%)이 더 높았다. 학

교, 학원 및 책 등을 통해서 배웠다는 비율은 저몰입 유형(11.9%)이 고몰입 유형(9.2%)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통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가정교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율 자체는 고몰입 유형이 47.5%로 저몰입 유형의 28.6%보다 더 높았다. 취미나 관심이 한국전통음식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비율도 25.8% vs. 7.1%의 비율로 고몰입 유형이 월등히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책을 통해서 배웠다는 응답은 고몰입 유형이 5.0%인데 비해 저몰입 유형은 51.2%로 거의 10배의 비율적 차이를 보였고, 고몰입 주부의 2명 중 1명은 책을 통해서 한국전통음식을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전통음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고몰입 유형에서는 맛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48.4%로 가장 높았는데 비해 저몰입 유형은 맛에 익숙해서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4.3%로 가장 높아 집단간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통음식이 영양 면에서 우수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몰입 집단보다 저몰입 집단이 더 높았다. 조리방법이 특이해서 한국전통음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명절과 행사시 외래음식에 비해 한국전통음식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고몰입 유형(44.0% vs. 35.7%)에서 더 높았으며, 외래음식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저몰입 유형(79.6% vs. 71.5%)이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외래음식과 한국전통음식을 반반씩 이용한다는 비율은 고몰입 유형보다 저몰입 유형에서 더 높은 비율은 나타내었다.

식사 준비 시 가족을 위해 고려하는 요인은 고몰입 집단과 저몰입 집단 모두 가족기호가 가장 우선되는 요인이며 그 다음이 영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간 비율 차이는 뚜렷하며 가족기호의 경우는 저몰입 집단이, 영양은 고몰입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맛을 중시한다는 응답은 고몰입 집단이 20.4%인데 비해 저몰입 집단은 14.3%로 고몰입 집단이 높는데 비해 건강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저몰입 집단이 고몰입 집단보다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 3) 인식유형별로 선호하는 전통간식

인식유형별로 선호하는 한국전통 간식은 <표 7>

&lt;Table 6&gt; Food culture tendencies in each group

Variables	Group		$\chi^2$
	High Involved	Low Involved	
	% (N=221)	% (N=84)	
Personal impact on learning traditional food			14.75***
husband's grandmother	6.0 ( 13)	3.6 ( 1)	
husband's mother	32.3 ( 70)	11.9 (10)	
wife's mother	52.5 (114)	72.6 (61)	
others (school, book, etc.)	9.2 ( 20)	11.9 (10)	
Source of interests for traditional food			91.2***
taste & preferences	25.8 ( 57)	7.1 ( 6)	
family education	47.5 (105)	28.6 (24)	
book	5.0 ( 11)	51.2 (43)	
others	21.7 ( 48)	13.1 (11)	
Reason for preferring traditional food			21.6***
nutritional factor	3.2 ( 7)	6.0 ( 5)	
taste	48.4 (107)	20.2 (17)	
used to eat	38.9 ( 86)	64.3 (54)	
special way of cooking	9.5 ( 21)	9.5 ( 8)	
Preparing food for holidays			41.9***
Korean traditional food	44.9 ( 99)	10.9 ( 9)	
foreign food	50.0 (110)	79.6 (67)	
half & half	6.0 ( 13)	9.5 ( 8)	
Preparing food for event			25.8***
Korean traditional food	35.7 ( 79)	10.9 ( 9)	
foreign food	52.4 (116)	71.5 (60)	
half & half	11.9 ( 26)	17.6 (15)	
Considering factor in preparing food for family			19.5***
family preferences	35.3 (78)	51.2 (43)	
nutrition	33.9 (75)	15.5 (13)	
price	2.7 ( 6)	3.6 ( 3)	
health	7.7 (17)	15.5 (13)	
taste	20.4 (45)	14.3 (12)	

Note: Each total is less than 221 and 84 due to missing data.

\*\*\*p&lt;0.001

에 제시되어 있다. 떡(찰떡, 송편, 증편, 시루떡 등)을 이용하는 비율은 고몰입 유형이 61.5%로 저몰입 유형의 19.0% 보다 더 높았다. 약과의 이용비율 역시 고몰입 유형(8.6%)이 저몰입 유형(3.6%)보다 다소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약식의 이용비율은 고몰입 유형이 65.2%인데 비해 저몰입 유형은 81.0%로 저몰입 유형에 속하는 집단이 15.8%정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식혜의 이용비율은 고몰입 유형(25.3%)이 저몰입 유형(6.0%)보다 더 높

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유형별로 자주 이용하는 전통간식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화채의 이용비율은 저몰입 유형이 고몰입 유형보다 두 배가량 높았으나 강정의 이용비율은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과의 이용비율은 두 집단 모두 그리 높지 않았으나 상대적 비율은 저몰입 집단보다 고몰입 집단이 더 높았다. 다식(깨다식, 밤다식, 송화다식, 콩다식 등)의 이용비율은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

&lt;Table 7&gt; Preferred Korean traditional snacks in each group

Snacks	Group		$\chi^2$
	High Involved	Low Involved	
	% (N=221)	% (N=84)	
Ttok (rice cake)	61.5 (136)	19.0 (16)	10.3***
Yakkwa (honey cake)	8.6 ( 19)	3.6 ( 3)	2.3
Yakshik (sweet rice)	65.2 (144)	81.0 (68)	7.2***
Shik'ye (sweet rice drink)	25.3 ( 56)	6.0 ( 5)	14.3***
Wach'ae (fruits punch)	5.4 ( 12)	11.9 (10)	3.8*
Gangjong (sesame, peanuts, & pinenuts cake)	14.5 ( 32)	10.7 ( 9)	0.7
Chonggwa (candied vegetable in syrup)	8.6 ( 19)	2.4 ( 2)	3.7*
Tashik (patterned savory cake)	6.8 ( 15)	2.4 ( 2)	2.3
Cha (Korean traditional tea)	35.7 ( 79)	9.5 ( 8)	20.5***
Miscellaneous	17.2 ( 38)	3.6 ( 3)	9.7***

Note: Each total is less than 221 and 84 due to missing data.

\*p<0.05 \*\*\*p<0.001

었다. 생강차를 비롯하여 엽차, 녹차, 구기자차, 모과차, 유자차 등과 같은 한국전통 차의 이용비율은 고물입 유형이 35.7%인 반면 저물입 유형은 9.5%로 고물입 유형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기타 전통간식의 이용비율 역시 두 집단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유형에 따라 이용비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몽골 조선족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전통음식에 관한 인식차원 및 유형을 알아보고 유형별로 식생활 문화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몽골 조선족 주부들의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구조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 민족공동체적 심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몽골 조선족 주부들이 가지는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 및 유형은 동질적 특성을 지니지 않고 주부들의 인식요인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로 구조화된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통해 파악된 인식 차원은 전통성 인지차원과 전통성-현대화 지향차원이며, 실질적인 집

단으로 묶는 군집분석에서는 이들 차원이 인식수준에 따라 유형을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형별로 구분한 집단 수는 전반적으로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고물입 집단에 속한 주부들이 상대적 인식수준이 낮은 저물입 집단에 속한 주부들 보다 월등히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물입 집단에 속한 조선족은 평균 소득수준과 학력은 저물입 집단보다 낮으나, 연령, 가족수, 결혼년수 등은 더 높았다.

둘째, 한국전통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두 집단 모두 가정교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취미나 관심이 계기로 작용한 경우는 고물입 집단이, 책을 통해서 배웠다는 응답은 저물입 유형이 월등히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전통음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고물입 집단은 주로 맛이 좋거나 맛에 익숙해서라고 응답한 요인 쪽으로 고른 분포를 보인데 비해 저물입 집단은 다수가 맛에 익숙해서 좋아하거나 영양 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명절과 행사시 외래음식에 비해 한국전통음식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고물입 집단이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음식을 만들 때 고려하는 요인은 두 집단 모두 가족기호와 영양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맛을 고려하는 경향은 고물입 집단이고, 건강을 고려하는 경향은 저물입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한국전통 간식 중 떡, 식혜, 전과, 차 등은 고물입 집단이 더 선호하고, 약식과 화채는 저물입 집단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식, 전과, 다식은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몽골 조선족의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과 인식유형은 식생활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몽골 조선족에게 한국전통음식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전통음식 전문가와 전통식품 산업관계자가 몽골 조선족 주부가 지닌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차원 및 유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은 고물입 집단이 전체의 %를 상회하고, 학력이 높고, 젊은 연령층으로 구성된 저물입 집단이 주로 서적을 통해 한국전통음식에 대해 배



운다는 점은 몽골 조선족에게 우리의 고유음식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이 어떠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다.

최근 들어 몽골은 개혁·개방 및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 소비의식의 변화, 핵가족화 및 가정기능의 사회화에 따라 식생활이 서구화되어 우리의 전통음식을 접할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이와 더불어 몽골 조선족의 식생활도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파악된 전통성-현대화 지향차원이 시사하는 바는 그 의미가 크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국전통음식이 지닌 고유성 및 우수성을 유지하면서 현대화·대중화하여 한국전통음식을 계승·발전시킴과 아울러

러 몽골의 다른 소수민족들에게도 넓은 범위로 우리의 고유음식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 ■참고문헌

- 1) Kim, Chon Ho :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Mongolian Food Culture, Journal of Korean-Mongolian Studies, 1996
- 2) Park, Won Gil : Nature and Culture of Mongo, Dosol Monwha Press, 1996
- 3) <http://www.bizmongol.com> : About Mongo, 2000